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 프로파일 유형별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

The Level of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by Narrative Responses Profile Types of Their Preschool Children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민 현 숙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 영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 Hyunsuk Min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Young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and preschoolers' story stem narrative response. Eighty two 4-year-old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is study used the following translated evaluation tools: Emotional Availability Scales(EA, 3rd edition) designed by Biringen and colleagues(1998) to examine the quality of the emotional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her child, and the MacArthur Story Stem Battery(MSSB) developed by Bretherton and colleagues with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 to measure preschoolers' narrative responses. The following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descriptive, cluster analysis, and One-way ANOVA.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4 clusters of the narrative responses of 4-year-old preschoolers were prosocial story tellers, avoidant/dysregulated story tellers, constrained story tellers, and anxious story tellers. Second, the preschoolers in the prosocial cluster showed a high level of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and the preschoolers in the avoidant/dysregulated cluster showed a low level of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주제어(Key Words) :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emotional availability), 내적표상(mental representation), 나레이티브 반응(narrative response), 프로파일 유형(profile types)

Corresponding Author : Hyunsuk Mi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guk Bldg. 10F, Anguk-Dong, Jongno-Gu, Seoul, 110-734, Korea Tel: +82-2-398-7745 Fax: +82-2-730-3317 E-mail: minhs@hanmail.net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I. 서론

어머니는 유아가 태어나 처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으로서 유아 발달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유아기는 성장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적응적인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시기로서, 사회 정서적 능력의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부모들은 유아의 건전한 사회 정서적 발달을 위해 유아들과 직접적인 정서적 대화나 교류를 도모하기 보다는, 유아들의 인지적인 성취에만 지나친 관심을 갖고 어린 시기부터 많은 인지적 자극에 과다 노출시키고 있으며(메디컬 뉴스, 2008년 4월 11일), 이로 인해 유아의 정신건강이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유아의 건전한 사회 정서적 발달의 기초에 대해 애착이론가들은 초기 부모-자녀 관계가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roufe, 1996). 어머니와 유아 간에는 지속적이고, 적응적인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상호작용에 있어서 신뢰, 애정, 관심, 기쁨이 균형을 이루는 관계가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Emde, 1980). 그러므로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어머니-유아 관계의 질에는 정서적 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동안의 어머니-유아 간의 정서 표현 및 정서적 대화의 교류는 건강한 어머니-유아 관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Bornstein, et al., 2008), 어머니-유아간의 이인체계에서의 정서는 초기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민감한 지표이다(Easterbrook, 1985). 이러한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은 뇌 자체의 역제 및 활성화 체계의 전환 및 균형에 필수적인 요소로 제안되고 있는데(Shore, 1994), 반응적이고 정서적 지지의 양육을 경험하는 유아의 뇌 체계는 쉽게 각성되지 않으며, 환경적인 변화에 융통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어머니와 유아는 서로의 경험과 반응에 가장 민감하고 강력하게 반응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어머니-유아 정서적 관계와 유아의 애착(Ziv, Aviezer, Gini, Sagi, & Koren-Kaire, 2000), 인지(Kang, 2005), 사회적 능력(Kang, 2005), 도덕성(Kochanska, 2002) 등 주요발달과 관련됨이 밝혀졌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머니-유아 간 관계의 질을 측정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가 자녀의 신호에 대해 얼마나 신속히 반응하는지, 어머니가 자녀를 대할 때 얼마나 애정적인지 등 어머니의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살펴볼 뿐, 상호작용 시 어머니와 유아가 쌍방 간의 정서나 갈등을 어떻게 표현하고 조율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Biringen 외(1998)

은 애착이론(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과 아동의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지지적인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이론(Emde, 1980; Mahler, Pine, & Bergman, 1975)을 근거로 하여 어머니-유아 상호 관계의 질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정서적 가용성(Emotional Availability: EA)'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정서적 가용성은 유아가 디스트레스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 처하였을 때 보이는 전반적인 어머니-유아 정서적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Biringen, 2000; Biringen, Robinson, & Emde, 1998; Bornstein, et al., 2006), 지속적인 친밀함, 발달적 변화 등이 결합되어 정서와 양육자와의 관계에 기초를 둔 관계적 개념을 의미한다(Emde & Eastbrook, 1985). 정서적 가용성 개념에는 어머니와 유아 간의 역동적인 상호적 의사소통 체계에 기초한 상호 조절이나 상호작용, 그리고 정서적 상태의 공유가 포함된다. 어머니-유아의 관계는 양방적이므로(Maccoby, 1992; Sander, 2000),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관계의 질은 어머니의 행동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어머니-유아간 이원체계를 하나의 분석 단위로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아의 반응성과 어머니를 참여시키는 유아의 행동까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아 자신의 경험이나 기억에 대한 내적 표상은 단순한 인지적 도식과는 달리 기술적인 인지적 구성요인일 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방어적인 인지적 요인까지 포함하고(Bretherton, 1985), 유아의 감정, 정서적 상태, 정서적 의미 구성 현상 등을 나타내주는 통로로서 개인의 독특한 내면의 세계이므로(Wolf, 2003),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현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유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내적 표상은 개인의 행동체계에서 영향력있는 근원으로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적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 표상은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된다고 보는 견해(Bretherton, 1985; Bowlby, 1982; Cassidy, 1988)가 많다. Ainsworth(1982)는 유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접근 용이성과 반응성이 유아의 내적 표상에 통합되어 사회적 관계에서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관계는 유아가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관계이다. 유아의 내적 표상은 자신과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정신적 구조로서, 어머니와의 정서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관계는 유아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기억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직화된 내적 표상 구성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유아와 어머니 모두를 위해 적절한 관계적 환경 조

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Bretherton, 2005). 따라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어머니와의 정서적 관계는 유아의 자신과 내적 세계에 대한 개인적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Raikes, & Tompson, 2008)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어머니와의 경험이 영아기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유아의 애착유형과 유아의 애착표상이 관련됨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머니-유아 정서적 관계와 유아의 내적 표상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제한되어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가설적 가정이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대체로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유아의 애착표상 유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들(조은영, 1996; Andrews-Cameron, 1998; Stevenson-Hinde & Shouldice, 1995)에서는 안정 애착아의 어머니는 불안정 애착 어머니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분위기, 자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보이고 편안한 가정 분위기를 제공하며, 불안정 애착아의 어머니는 강압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와 유아의 양방적인 정서적 관계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측정하고 있고, 유아의 전반적인 애착표상 유형만을 측정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정서적 세계에 대한 이해와 내적 표상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관계와 유아의 내적 표상과 관련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MSSB를 이용하여 유아가 이야기를 완성하게 하고, 유아가 각 이야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표현된 이야기와 행동을 토대로 유아의 내적 표상을 연구해 왔으며(민성혜, 신혜원, 이영, 2004; 유영미, 이영, 2001; Kochanska, Padvich, & Koeing, 1996; Oppenheim, Emde, & Warren, 1997; Von Klitzing, Kelsay, Emde, Robinson, & Schmitz, 2000), 이야기 완성과제에서의 이야기 주제와 수행코드(content themes and performance code)는 유아의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혜원, 2004; 이희원, 2004; 임경민, 2004; Emde, 2007; Holmner, Robnson, Corbitt-Price, & Wiener, 2007).

최근에는 유아의 내적 표상을 개인 유아의 특징에 따라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이나 군집 분석 등으로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 특징을 유형화하는 프로파일 중심의 접근(profile-oriented approach)이 시도되고 있다(민성혜, 2006; Lee, Robinson, Min, Min, & Shin, 2009; Robinson, Holmberg, & Klute, in press; Robinson, Oxford, Spieler, & Klute, 2006). 프로파일 중심 접근(profile oriented approach)은 유아의 개인적 특성을 정의하고 반영하며, 내적 표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이야기 반응을 평가하고 해석할 때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Robinson,

2007),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집단의 비교를 위해 개인지향 접근을 주장하는 학자들은(예: von Eye & Bergman, 2003) 개인적 특성에서 유사한 사례들을 묶어 군집화 하여 분석하기를 권하고 있다(민성혜, 2006). 이와 유사하게 Strayer 외(1995)는 애착 Q-sort의 도구 타당화 연구에서 두 표본 집단을 군집분석하여 유형화 한 후, 각 군집유형에 속한 유아들의 애착행동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각 군집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유아의 내적 표상을 프로파일 유형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사한 배경을 가진 집단의 내적세계의 특징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정서적 관계의 질과 유아의 사회 정서적 세계에 대한 내적 표상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머니-유아 정서적 가용성을 파악해보고, 개인별 내적 표상을 프로파일로 유형화하여 내적 표상의 공통된 특징을 공유한 집단에 속한 유아들과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의 특성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관계와 유아의 내적 표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줄 것이며, 앞으로 위험부담을 가진 집단의 프로파일 유형을 파악하여 집단에 따른 취약점을 고려하여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4세 유아와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은 어떠한가?
2. 나레이티브 반응에 나타난 4세 유아의 내적 표상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3. 4세 유아의 나레이티브 프로파일 유형별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4세 유아 82명(남아 45명, 여아 37명)과 그들의 어머니 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4곳을 임의 선정 후, 각 유치원의 유아반 담당교사를 통해 유아의 가정에 연구 협조문을 보낸 다음,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이전에 연구대상 유아들이 정상범주에 속하고, 이야기 완성과제를 실시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를 판단하기 위하여 박혜원, 광금주와 박광배(1995)가 표준화한 ‘한국 웍슬러 유아 지능 검사’ 중 언어성 지능에 관련된 소검사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연구 대상 유아들의 언어성 지능 점수 범위가 81~137점으로 나타나, 경제선 범주(70~79점)이하에 속하는 유아가 없었기에 82명의 유아 모두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4세 유아들은 풍부한 상상놀이와 표상을 나타내고 (Oppenheim, 2003),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경험이 확대되면서 유아의 내러티브 표상이 사회적 바람직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민성혜 외, 2004)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만4세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유아의 연령은 평균 4세 7개월이었고, 성별 구성은 남아 45명(54.9%), 여아 37명(45.1%)이었다. 형제수는 2명이 59명(7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 명인 경우가 18명(22%), 세 명 이상인 경우가 5명(6%)을 차지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평균 37.7세, 어머니가 평균 34.9세로, 부모 모두 30대가 59명(72%)과 75명(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고졸이상으로 대졸 이상이 아버지 72명(87.8%), 어머니 60명(73.2%)으로 높은 편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사무직이 47명(57.3%),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65명(79.3%)이었으며, 가계의 월 평균 수입은 400만원이상이 39명(47.6%)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만원대(35.4%), 200만원대(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정서적 가용성 척도(Emotional Availability Scales)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Biringen, Robinson과 Emde(1998)가 개발한 정서적 가용성 척도(Emotional Availability Scales, 3rd edition, Infancy to Early Childhood Version: EAS)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적 가용성 과제를 실시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검사과정에 대한 간단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어머니와 유아에게 함께 책상과 의자 및 비디오 녹화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제시된 놀잇감(버튼을 돌려 그림 그리는 판과 기사놀이 블록)을 가지고 20분간 놀이를 하며 상호작용하도록 안내하였다. 제시된 20분 중 5분은 ‘버튼을 돌려 그림 그리는 판(Etch-A-Sketch)’을 이용한 ‘집 그리기’ 과제가 제시되며, 15분간은 기사놀이 블록을 갖고 어머니와 유아가 자유놀이를 하며 상호작용하도록 하였다. 전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정서적 가용성 척도(EA Scales)는 어머니 척도와 유아 척도로 구분되어 있다.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차원은 민감성, 구조화, 비침해, 비적대감이며,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차원은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반응성과 유아의 어머니 참여시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차원은 어머니 민감성은 9점 척도, 구조화, 비침해, 비적대감은 각 5점 척도로 평정하고, 유아의 반응성, 유아의 어머니 참여시킴은 각 7점 척도로 평정한다. 평정의 기준은 어머니나 유아 모두 상호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적절하고 행동하고, 반응 할 때 적절성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에서 상호적이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본 연구자는 이 척도의 개발자인 Zeynep Biringen에게 원격 훈련 테입으로 신뢰도 훈련을 받고 자격인증을 받았다. 본 연구 관찰항목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전체 사례 중 16사례에 대해 본 연구자와 신뢰도 훈련을 함께 받은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한 명이 평정하여 적률상관계수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87~.98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2) 유아의 내적 표상

유아의 내적 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와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이 개발한 것을 이영 외(in press)가 번안한 K-MSSB(Korean-MacArthur Story Stem Battery)를 이용하였다. 이야기 완성 과제(K-MSSB)는 유아에게 정서적으로 부담스러운 주제인 부모와 애착관계, 가족갈등, 친구와의 갈등,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14개의 에피소드와 도입이야기, 종결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이야기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제시한 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질문하였다. 이야기 완성과제의 모든 과정은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였다.

이야기 완성과제의 모든 과정이 녹화된 자료는 Robinson, Mantz-Simmons, Macfie와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2004)이 개발한 MacArthur Narrative Coding Manual(MNCM)을 이영 외(in press)가 번안한 K-MNCS(Korean-MacArthur Narrative Coding System Manual)에 근거하여 코딩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야기 완성 과제의 실시 절차와 채점을 위해 MSSB 평정척도 지침서(manual)의 저자 중 한 명인 JoAnn Robinson으로부터 실험실시 절차 및 주의사항 그리고 평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훈련을 받았다. 신뢰도 산출을 위해 연구 대상의 20%에 해당하는 16사례에 대해 본 연구자와 훈련에 함께 참여하였던 아동학 전공자 한 명이 평정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전체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형코드에 대한 관찰자간 신뢰도(r)는 .87이었다.

3) 유아 언어성 지능

유아가 이야기 완성 과제(K-MSSB)를 수행하기에 언어적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박혜원 외 (1995)가 표준화한 ‘한국 웨슬러 유아 지능검사(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 중 언어성 지능에 관련된 소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선에 해당하는 언어성 지능 점수 79점 이하(박혜원 외, 1995)의 유아를 판별하기 위해 본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대상 유아의 언어성 지능의 평균점수는 100.6(표준편차 = 11.6)점이었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조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유아 82쌍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을 통한 내적 표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와 MSSB에 대한 시연훈련을 받은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유아와의 개별면접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전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유아가 약 5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K-WPPSI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가 기관에서 일과를 마친 후, 어머니가 기관을 방문하여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분석을 위해 SPSS WIN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 프로파일을 유형화하기 위해 이야기 완성 과제의 다섯 개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행코드별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각 대상들의 특성 변수들을 이용하여 대상들 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거리를 계산하고 이 지표에 의해 유사한 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상들로부터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위계적 군집분석에서 얻어진 군집의 수를 바탕으로 k개의 시작점을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유사성에 근거하여 군집화를 시행하였다. K-means 군집분석은 군집분석을 기초로 종속변수의 차이검증에 목적을 두고 있을 때 유용한 방법이다(김구, 2008). 또한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 프로파일 유형별로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유아 정서적 가용성

어머니-유아 정서적 가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실험’에서 보이는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표 1>과 같다.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은 어머니-유아 쌍을 분석단위로 어머니 가용성

과 유아 가용성으로 나누어 어머니의 민감성, 구조화, 비침해, 비적대감의 수준과 유아의 반응성과 유아의 어머니 참여시키기 수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대상 어머니의 민감성의 평균은 5.38점, 어머니 구조화의 평균은 3.17점, 비침해의 평균은 3.20점, 비적대감의 평균은 3.68점이었다. 유아의 반응성의 평균은 5.06점이고 유아의 어머니 참여시킴의 평균은 4.66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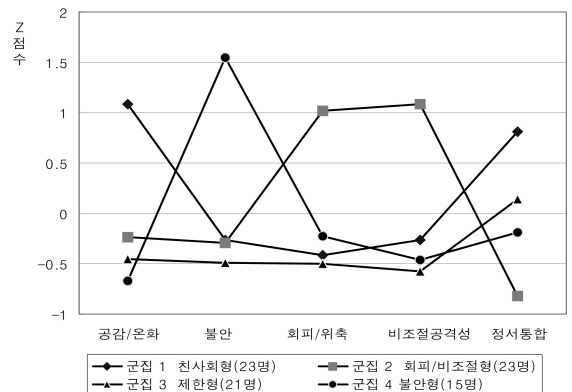
<표 1> 어머니- 유아 정서적 가용성 차원의 점수 범위, 평균과 표준편차

		(N = 82)		
하위차원	가능한점수범위	점수범위	전체M(SD)	
어머니	민감성	1 - 9	2 - 9	5.38(1.58)
	구조화	1 - 5	1 - 5	3.17(.97)
	비침해	1 - 5	1 - 5	3.20(1.07)
	비적대감	1 - 5	2 - 5	3.68(.89)
유아	반응성	1 - 7	2 - 7	5.06(1.35)
	어머니 참여시킴	1 - 7	1 - 7	4.66(1.31)

2. 유아 나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일 유형

이야기 완성 과제를 통해 측정된 만 4세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을 군집분석한 결과 <표 2>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네 개의 유형으로 군집화 되었다. 우리나라 중산층 4세 유아는 다음의 4가지 프로파일 유형 중 한 가지 프로파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집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네 개의 프로파일 유형은 친사회형(28%), 회피/비조절형(28%), 제한형(25.6%), 그리고 불안형(18.4%)으로 명명하였다. 각 프로파일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집 1(친사회형)은 공감/온화 반응이 높고 정서적 통합 반응이 높으며 나머지 반응은 낮은 경우이다. 이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검사자가 이야기를 제시하고 유아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하



<그림 1>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에 따른 프로파일 유형

〈표 2〉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별, 성별, 이야기 내용 주제와 수행코드 (Z점수)

(N = 82)

프로파일 유형 차원	군집 1 (친사회형)			군집2 (회피/비조절형)			군집3 (제한형)			군집4 (불안형)		
	남 (n = 12)	여 (n = 11)	전체 (n = 23)	남 (n = 14)	여 (n = 9)	전체 (n = 23)	남 (n = 11)	여 (n = 10)	전체 (n = 21)	남 (n = 8)	여 (n = 7)	전체 (n = 15)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공감/ 온화	.91 (.86)	1.26 (.54)	1.08 (.73)	-.52 (.83)	.21 (.45)	-.23 (.78)	-.54 (.56)	-.35 (.77)	-.45 (.66)	-.86 (.58)	-.45 (.92)	-.67 (.76)
불안	-.11 (.66)	-.43 (.75)	-.26 (.71)	-.20 (.83)	-.44 (.45)	-.30 (.71)	-.40 (.58)	-.59 (.82)	-.49 (.69)	1.51 (.49)	1.59 (.72)	1.55 (.59)
회피/ 위축	-.61 (.46)	-.20 (.70)	-.41 (.61)	1.04 (.95)	.97 (.91)	1.02 (.92)	-.54 (.72)	-.46 (.56)	-.50 (.63)	-.04 (1.10)	-.44 (.78)	-.22 (.95)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23 (.66)	-.30 (.58)	-.26 (.61)	1.29 (1.09)	.77 (1.02)	1.09 (1.07)	-.48 (.46)	-.67 (.34)	-.57 (.41)	-.51 (.65)	-.41 (.65)	-.46 (.63)
정서적 통합	.91 (.70)	.70 (.88)	.81 (.78)	-.95 (.66)	-.62 (.64)	-.82 (.66)	.41 (.65)	-.15 (.92)	.15 (.82)	.12 (.96)	-.54 (.86)	-.19 (.96)

였을 때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등장 인물들이 같이 활동에 참여하거나 안거나 뽀뽀를 하는 등 애정을 표시하고, 부모를 긍정적으로 표상하며,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 주제와 맥락에 따라 기쁨과 슬픔, 분노, 디스트레스, 염려 등 다양한 정서적 반응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이야기도 논리적으로 이어지고 일관적이고 풍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친사회형 유형에 속한 유아는 공감/온화 반응과 다양한 정서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이야기의 논리적 일관성이 높았다. 이 유형에 속한 유아는 23명으로, 남아 12명, 여아 11명이 속하였다.

둘째, 군집 2(회피/비조절형)는 회피위축 반응과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반응을 많이 보인 경우이다. 이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이야기 완성과제를 제시하면, 갈등의 정도가 특히 높아지는 이야기주제에서 “근데 이 인형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난 식탁이 필요해요.” 등과 같이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야기 속에 공격적인 요소나 비도덕적인 요소들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주인공들이 “모두 잠들었어요.” 라고 갑작스런 수면으로 이야기를 돌려버리거나, 제시된 인형들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거나 인형들끼리 부딪히거나, 인형을 테이블에 던지거나 테이블에 소리가 나도록 때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종결하거나, 검사자가 이야기를 다 제시하기 전에 “내가 할 거예요. 이걸 내가 알아요.” 등의 검사자 통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회피/비조절형은 갈등 상황이 제시되면 회피/위축 반응이나 이야기를 보이면서, 맥락과 상관없이 조절되지 않은 공격적인 주제의 이야기를 많이 나타낸다. 이 유형에 속한 유아는 23명으로, 남아가 14명이고 여아는 9명이었다.

셋째, 군집 3(제한형)은 거의 모든 반응이 간략하고 감정의 표현과 변화도 거의 없는 경우이다. 이 유형에 속한 유아

들은 대체로 이야기를 짧고 간단하게 대답하였고, 이야기 주제나 갈등 정도에 따라서도 표정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가 심하지 않았다. 또한 검사자가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나니?”라고 질문하면 “이제 끝이에요.”, 혹은 “그냥 이렇게 끝나요.”라고 대답하는 등 극히 간단한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종결하였다. 이처럼 제한형 유형에 속한 유아는 21명으로 남아 11명, 여아는 10명이 속하였다.

넷째, 군집 4(불안형)는 불안 행동 반응정도는 높고 공감/온화, 회피/위축,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정서적 통합 등 나머지 반응은 모두 낮은 경우이다. 이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이야기 완성 과제에 대한 소개를 받거나 인형을 가지고 놀이를 해보는 위밍업 시간에는 무난하였으나 이야기 완성과제를 시작하여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걱정이나 불안을 나타내는 신체적 움직임으로 책상에 기대거나, 입술을 깨물고, 머리카락을 돌돌 마는 등의 행동, 혹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야기 주제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는 내용에서는 검사자가 다시 질문하여도 제시된 이야기를 완성하기를 어려워하여 “몰라요.” 또는 “그냥 끝나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거나, 검사자의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며 대답 자체를 피하였다. 이처럼 불안한 행동을 보이고 대답을 피하는 반응을 많이 나타낸 유형을 불안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 속한 유아는 15명으로, 남아는 8명 여아는 7명이었다.

3. 유아 나레이티브 반응 프로파일 유형별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에 나타난 내적 표상과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나레이티브 반응에 따른 내적 표상 프로파일 유형별 어머니-유아

〈표 3〉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 프로파일 유형별 어머니-유아 정서적 가용성 차이분석

(N = 82)

정서적 가용성	프로파일 유형	군집 1 (친사회형) n = 23	군집 2 (회피/비조절형) n = 23	군집 3 (제한형) n = 21	군집 4 (불안형) n = 15	F
		M(SD)	M(SD)	M(SD)	M(SD)	
어머니	민감성	5.91(1.41)	4.87(1.58)	5.00(1.55)	5.87(1.60)	2.73*
	구조화	3.52(.90) _a	2.87(1.10) _b	2.95(.80) _{ab}	3.40(.91) _{ab}	2.53 [†]
	비참여	3.61(.89)	3.04(1.10)	2.86(1.15)	3.27(1.03)	2.10
	비적대감	4.09(.85) _a	3.43(.84) _b	3.52(.81) _{ab}	3.67(.98) _{ab}	2.56 [†]
유아	반응성	5.70(1.11) _a	4.61(1.53) _b	4.95(1.20) _{ab}	4.93(1.33) _{ab}	2.84*
	어머니 참여시키기	5.00(1.09)	4.17(1.53)	4.67(1.06)	4.87(1.46)	1.75

주. a, b는 scheffé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p < 1.0, *p < .05

정서적 가용성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내적 표상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은 어머니 민감성(F = 2.73, p < .05), 구조화(F = 2.53, p < .10), 비적대감(F = 2.56, p < .10)과 유아의 반응성(F = 2.84, p < .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어머니의 구조화와 비적대감, 유아의 반응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친사회형으로 분류된 유형과 회피/비조절형 유형 간에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의 하위 차원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공감/온화 반응과 정서적 통합 반응이 높은 특성을 가진 친사회형에 속한 유아의 어머니(M = 3.52)들이 회피위축 반응과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반응이 높게 나타난 회피/비조절형에 속한 유아 어머니(M = 2.87)들보다 구조화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사회형에 속한 유아의 어머니(M = 4.09)들이 회피/비조절형 유아 어머니(M = 3.43)들보다 비적대감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안 행동 반응만이 높게 나타난 불안형에 속한 유아와 어머니들은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4세 유아와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은 어떠한지,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은 어떻게 유형화 되는지, 그리고 어머니-유아 정서적 가용성과 유아의 내적 표상이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은 어머니-유아 쌍을 분석단위로 어머니 가용성과 유아 가용성으로 나누어 어머니의 민감성, 구조화, 비침해, 비적대감의 수준과 유아의 반응

성과 유아의 어머니 참여시키기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대상 어머니의 민감성의 평균은 5.38점이었다. 이 결과는 Biringen 외(1998)가 민감성 척도에서 6점 이상은 적절한 수준으로, 6점 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Easterbrooks & Biringen, 2005)한 것과 1~9점의 점수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중간 수준에서 약간 낮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구조화의 평균은 3.17점, 비침해의 평균은 3.20점, 비적대감의 평균은 3.68점으로서 1~5점의 점수범위를 고려했을 때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유아의 반응성의 평균은 5.06점이고 유아의 어머니 참여시키기의 평균은 4.66점으로서 1~7점의 점수범위를 고려했을 때 중간이상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같은 도구를 이용한 국내 선행연구는 없어, 외국 선행연구들(Biringen, et al., 2005; Bornstein, et al., 2008; Kang, 2005)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의 민감성, 구조화, 비침해, 비적대감이 모두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유아의 반응성과 유아의 어머니 참여시키기도 조금 낮은 경향을 보였다.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연구들과 본 연구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탈리아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정서적 교류의 표본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이탈리아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정서적이고 반응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져 있다(Bornstein, et al., 2008). 그 결과, 어머니의 민감성, 구조화, 비적대감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부모들은 다른 민족의 부모보다 더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Liu, et al., 2005). 캐나다와 중국의 만 2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한 Liu 외(2005)에 의하면, 중국인 어머니들은 실험이 끝난 후 유아의 수행에 대해 결과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검사자에게 유아의 행동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대상 어머

니들의 경우에도 관찰이 끝난 후, 유아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수행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며 질문을 많이 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어머니나 중국 어머니들의 경우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에서,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의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내용이나, 정서적 조율이나 과정보다는 유아의 수행결과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았다. 특히 '집 그리기' 과제 수행시 자녀가 버튼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어려워 할 때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면서 격려를 하고, 진전을 보일 때 칭찬을 하기 보다는 자녀가 어려워 할 때, 어머니가 직접 그리려고 시도를 많이 하거나 오히려 약간을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심지어 짜증을 얼굴에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부모가 유럽계 미국인 부모보다 자녀의 성취나 학업의 성공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연구결과(Shaffer, 2005)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계 이민자 가정과 백인 가정 사이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살펴 본 연구(남은영, 2008)에서, 한국계 이민자 가정의 부모들이 백인 부모들보다 지시적이며 덜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된 결과이다.

둘째,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이 어떠한 프로파일로 유형화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SSB 이야기 완성과제의 14개 에피소드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가지고 측정한 자료를 군집 분석 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공감/온화 반응과 정서적 통합 반응이 높은 특성이 있는 친사회형(28.0%)과 회피위축 반응,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반응이 높은 특성이 있는 회피/비조절형(28%)이 같은 비율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모든 나레이티브 반응이 낮게 나타난 제한형(25.6%), 그리고 불안 행동 반응만 높고 다른 반응은 낮은 특성을 보인 불안형(18.4%)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내적 표상을 군집 분석한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만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민성혜(2006)의 연구에서는 제한형(37.7%), 불안/억제형(18.9%), 친사회형(9.8%), 공감/회피형(4.9%), 비조절형(4.1%), 불안/회피형(3.3%)의 여섯 개 유형으로 군집화되었다. Lee 외(2009)는 한국과 미국의 만 5세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에 대해 비교문화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한국 5세 유아들은 제한형(32.7%), 비조절형(28.2%), 친사회형(17.3%), 불안형(15.5%), 그리고 불안/비조절형(6.4%)으로 총 다섯 개의 유형으로 군집화 되었고, 미국의 만 5세 아동들은 친사회형(28.4%), 불안/통합형(25.3%), 비조절형(16.8%), 불안형(16.8%), 공감형(12.7%)의 다섯 개 유형으로 군집화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유아의 경우 민성혜(2006)의 연구와 Lee 외(2009)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친사회형, 제한형, 불안형의 유형이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회피위축 반응과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반응이 높은 특징을 보인 회피/비조절형의 유형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동일한 유형은 아니지만,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의 반응이 높은 비조절형 혹은 회피/위축 반응이 높은 회피형의 비율이 적게 나타났다. Robinson 외(in press)는 나레이티브 반응의 프로파일 유형은 대상 유아의 개인적인 특성, 연구대상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배경과 유아의 언어능력이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본 연구 실시과정 중 정서적 가용성 실험에서 '집 그리기' 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과 이야기 완성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실시한 유아의 언어성 지능 검사 결과에 대한 어머니들의 반응으로 사회문화적 특성을 유추해 볼 때,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유아의 인지적 성취에 대해 가지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이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능력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져서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행동과 반응을 보이는 유아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야기 완성 과제를 통해 나타나는 유아들의 나레이티브 반응에 대한 내적 표상 프로파일 분석은 아직 많은 연구가 없어 우리나라 유아의 프로파일 유형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여러 특성을 가진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연구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친사회형으로 분류된 유아들은 회피/비조절 유형에 속한 유아들보다 어머니와의 정서적 가용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적 표상에서 공감/온화 반응과 정서적 통합 반응이 높은 특성을 갖는 친사회형에 속한 유아들의 어머니들이 놀이상황에서 구조화를 잘 하고 적대적이지 않았으며, 유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반응성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회피위축 반응과 조절되지 않은 공격성 반응을 높게 보인 회피/비조절형으로 분류된 유아들의 어머니들은 유아와의 놀이를 적절하게 구조화를 하지 못하고, 유아들에게 적대적인 표현을 보이며, 유아들도 어머니에게 반응을 활발하게 하지 않아 낮은 정서적 가용성 수준을 보였다.

다양한 정서적 사건이나 강한 정서적 흐름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제시된 자극에 대해 유아가 이야기로 의미를 구성해 가고 이야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은 유아가 얼마나 정서조절을 적절히 하고 있느냐를 반영한다(Oppenheim et al., 1997; Sher-Censor & Oppenheim, 2004). MSSB에서 극적으로 제시되는 모든 에피소드는 유아로 하여금 그 상황을 해결하고 다양한 주인공들의 역할을 실행해보면서 복합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풍부한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야기에 대해 공감반응을 많이 하고 정서적인

반응을 풍부히 하고, 논리적인 이야기의 일관성을 보여 정서 통합이 높은 유아로 분류된 친사회형에 속한 유아들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친사회형 유아의 어머니들은 회피/비조절형으로 분류된 유아의 어머니들보다 구조화 그리고 비적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유아의 반응성에 있어서도 다른 유형에 속한 유아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으로 가용적인 양육자는 유아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긍정적 정서나 부정적 정서 모두를 경험하도록 한다(Lyons-Ruth & Zeanah, 1993)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공감/온화와 정서적 통합이 높은 친사회형 유아의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가용적이며, 유아들 또한 반응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친사회형에 속한 유아들은 어머니와 정서적 관계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 표현이 유아의 이야기의 일관성과는 정적 상관, 공격적 주제와 부적 상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Laible(2006)의 연구와,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도덕적 갈등상황에 대한 나레이티브 반응 중 공감주제와의 관련성을 밝힌 정소영(2006)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아의 애착 유형과 어머니와 영아의 정서적 관계를 비교한 Aviezer, Sagi, Joels와 Ziv(1999)의 연구에 의하면, 안정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영아의 어머니 민감성이 저항애착 영아의 어머니 민감성보다 높고,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반응성, 어머니 참여시킴기에서도 안정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영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회피/비조절형으로 분류된 유아들의 어머니들은 다른 유형의 어머니보다 민감성, 구조화, 그리고 비적대감이 다른 유형의 어머니들보다 낮으며,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반응성도 다른 유형에 속한 유아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비조절형에 속한 유아의 어머니가 민감성, 구조화, 비적대감이 낮다는 것은 어머니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아의 필요에 적절히 반응을 하지 못하며, 조롱이나 지루함 등 적대적인 정서를 표출한다고 볼 수 있다. MSSB는 유아의 사회 정서적 세계에 대한 이해와 표상이 드러나는 것이다(Holmner et al., 2007). 회피/비조절형으로 분류된 유아들은 이야기가 갈등상황이 포함된 이야기가 제시되면, 회피/위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조절되지 않는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이야기 완성 과제는 공격적 주제나 회피적 주제를 이용하거나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레이티브 반응 맥락에서 공격성, 개인적 상해, 파괴와 같은 비조절된 공격성 반응이나 회피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유아의 정서적 비조절성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냉정하고 강압적이고 무반응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제한설정이 부족한 어머니의 자녀가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역기능적 정서

조절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Eisenberg et al., 1992; Gottman & Katz, 1989)와 부모의 신체적 처벌을 통한 훈육 방식은 유아의 공격적 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Maccoby(198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가 어머니에게 공감적인 반응을 받지 못하면 공격적 행동이 나타날 위험에 노출된다는 Robinson 외(2000)의 견해와 일관된 결과로 보인다. 즉, 회피/비조절 유형에 속한 유아들은 평소에 어머니로부터 민감하게 반응을 받지 못하고, 적절한 비계설정을 받지 못하고, 적대적인 정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아는 회피/비조절된 공격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 유형에 따라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공유된 정서와 조율을 잘하는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이 높은 유아가 내적으로 잘 조직화되고 친사회적인 사고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나레이티브 반응 특성을 프로파일 유형으로 묶어 분석함으로써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가용성과의 관련성을 좀 더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서적 가용성 척도의 이용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연구 자료이나, 본 연구의 대상자인 어머니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본 연구에 지원한 어머니들과 그 자녀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점과 표집의 크기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집단의 표준화된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정상 집단 유아의 내적 표상을 프로파일로 유형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위험부담을 가진 집단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 취약점과 특성을 파악하여 중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기의 내적 표상과 동시대인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관계의 관련성을 밝혔으나 인과적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유아의 내적 표상이 유아기의 어머니-유아의 정서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유아의 내적 표상은 생후 초기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변인들이 충분한 인과관계의 설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장기 종단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구(2008). **사회과학 계량분석의 활용**. 서울: 비엔엠박스.
남은영(2008). 부모의 초정서 인지방식과 부모-자녀 상호작용

- 용에 대한 비교 문화연구.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09-121.
- 메디컬투데이(2008. 04. 11). 영유아에게 인위적으로 과도한 자극, 정상적인 뇌 발달저해가능. www.mdtoday.co.kr. 2008년 8월 20일 인출.
- 민성혜(2006). 유아의 내적 표상과 행동억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민성혜, 신혜원, 이영(2004).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나레이티브 표상 발달. **아동학회지**, 25(6), 153-170.
- 박혜원, 곽금주, 박광배(1995). **K-WPPSI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신혜원(2004). 3-4세 유아의 애착행동과 애착 표상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영미, 이영(2001).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63-74.
- 이경숙, 정석진, 신의진(2003). 학령전기 학대유아와 일반유아의 이야기표상 차이; 양육자, 자기, 표상구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71-86.
- 이영, 민성혜, 신혜원, 유영미, 마음읽기 연구회(in press). Korean-MacArthur Story Stem Battery. 인쇄중.
- 이영, 민성혜, 신혜원, 유영미, 민현숙, 마음읽기 연구회(in press). Korean-MacArthur Narrative Coding System Manual. 인쇄중.
- 이희원(2004). 유아의 나레이티브 표상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경민(2004). 유아의 나레이티브 표상과 사회적 상호작용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소영(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도덕적 갈등상황에 대한 나레이티브 표상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insworth, M. D. S.(1990). Some considerations regarding theory and assessment relevant to attachments beyond infancy.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pp. 463-488).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ndrews-Cameron, T. L.(1998). African-American, urban preschool children's in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ssociations with adolescent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Aviezer, O., Sagi, A., Joels, T., & Ziv, Y.(1999). Emotional availability and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Kibbutz infants and their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811-821.
- Biringen, Z.(2000). Emotional availability: Conceptualization and research finding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0, 104-114.
- Biringen, Z., Damon, J., Grigg, W., Mone, J., Pipp-Siegel, Skillern, S., et al.(2005). Emotional availability: Differential predictions to infant attachment and kindergarten adjustment based on observation time and contex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 295-308.
- Biringen, Z., & Robinson, J.(1991). Emotional availability in mother-child interactions: A reconceptualization for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 258-271.
- Biringen, Z., Robinson, J., & Emde, R. N.(1998). *The emotional Availability Scales* (3rd ed.) Unpublished manual, Colorado State University. Fort Collins, CO.
- Bornstein, M. H., Gini, M., Putnick, D. L., Haynes, O. M., Painter, K. M., & Suwalsky, J. T. D. (2006). Short-term reliability and continuity of emotional availability in mother-child dyads across contexts of observation. *Infancy*, 10, 1-16.
- Bornstein, M. H., Putnick, D. L., Heslington, M., Gini, M., Suwalsky, J. T. D., Venuti, P., et al.(2008). Mother-child emotional availability in ecological perspective: Three countries, two regions, two genders. *Developmental Psychology*, 44, 660-680.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3-35.
- Bretherton, I.(2005). In pursuit of the internal working model construct and its relevance to attachment relationships. In K. E. Grossmann, K.

- Grossmann, & E. Waters. (Eds.). *Attachment from infancy to adulthood: The major longitudinal studies* (pp.13-47).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Oppenheim, D., Buchsbaum, H., Emde, R. N., &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 *MacArthur story-stem battery*. Unpublished manual.
- Easterbrooks, A., M., & Biringen, Z.(2000). Guest editors'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Mapping the terrain of emotional availability and attachment.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2*, 170-187.
- Easterbrooks, A., M., & Biringen, Z.(2005). The emotional availability scales: Methodological refinements of the construct and clinical implications related to gender and at-risk interaction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 291-294.
- Eisenberg, N., Fabes, R. A.(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Emotion and social behavior: Vol 14,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pp. 119-150). Newbury Park, CA: Sage.
- Emde, R. N.(1980). Emotional Availability: A reciprocal reward system for infants and parents with implications for prevention of psychosocial disorders. In P. M. Taylor (Eds.). *Parent-infant relationship*. Orlando, FL: Grune & Stratton.
- Emde, R. N.(2007). Engaging imagination and the future: Frontiers for clinical work.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9*, 295-302.
- Emde, R. N., & Easterbrooks, M. A.(1985). Assessing emotional availability on early development. In W. K. Frankenburg, R. N., Emde, & J. W., Sullivan (Eds.), *Early identification of children at risk.: An international perspective*(pp.79-101). New York: Plenum Press.
- Holmberg, J., Robinson, J., Corbitt-Price, J., & Wiener, P.(2007). Using narrative to assess competencies and risks in young children: Experiences with high risk and normal population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8*, 647-666.
- Kang, M.(2005). Quality of mother-child interaction assessed by emotional availability scales: Associations with maternal psychological well-being, child behavior problems and child cognitive functi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Kochanska, G.(2002).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A context for the Early development of consci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 191-195.
- Laible, D.(2006).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attachment security: Link to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and social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52*, 645-670.
- Lee, Y., Robinson, J., Min, S., Min, H., & Shin, H.(2009). Profiles of narrative responses: Cross-cultural comparison between five-year-old Korean and U. S. children.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 Liu, M., Chen, X., Rubin, K. H., Zheng, S., Cui, L., Li, D., et al.(2005). Autonomy-vs. connectedness-oriented parenting behaviors in chinese and canadian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 489-495.
- Lyons-Ruth, K., & Zeanah, C.(1993). The family context of infant mental health part I ; Affective development in the primary caregiving relationships. In C. Zeanah (Ed.). *Handbook of infant mental health*(pp. 14-37). New York: Gillford.
- Maccoby, E. E.(1992). The role of parent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An historical over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006-1017.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Symbiosis and individuation*. New York: Basic Books.
- Oppenheim, D.(2006). Child, parent, and parent-child emotion narratives: Implications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 771-790.
- Oppenheim, D., Nir, A., Warren, S., & Emde, R. N.(1997).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 narrative co-construction: Association with children's narrative ada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84-294.
- Raikes, H. A., & Tompson, R. A.(2008). Conversations

- about emotion in high-risk dyad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10, 359-377.
- Robinson, J., Holmberg, J., & Klute, M. M. (in press). Moving toward the person with the MSSB: Sate of the Art in Colorado.
- Robinson, J., Herot, C., Haynes, P., & Mantz-Simons, L.(2000). Children's story stem response: A measure of program impact on developmental risks associated with dysfunctional parenting. *Child abuse and neglect*, 24, 99-110.
- Robinson, J. L.(2007). Story stem narrative with young children: Moving to clinical research and practic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9, 179-185.
- Robinson, J., Oxford, M., Spieker, S., & Klute, M.(2006). Profile of children's narrative response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World Association for Infant Mental Health Biennial Meeting. Paris, France.
- Schore, A. N.(1994). *Affect regulation and the origin of the self: The neurobiology of emotional development*. Hillsdale, NJ:Erlbaum
- Shaffer, D. R.(2005).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ustralia ; Belmont, CA : Wadsworth. Thomson Learning.
- Sher-Censor, E., & Oppenheim, D.(2004). Coherence and representations in preschoolers' narratives: Associations with attachment in infancy. In . W. Pratt, & B. H. Fiese (Eds.). *Family stories and the life course: Across time and generations*(pp.78-88).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roufe, A.(1996). *Emotional development: The organization of emotional life in the early yea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venson-Hinde, J., & Shouldice, A.(1995). Maternal interaction and self-reports related to attachment classifications at 4.5 years. *Child Development*, 66, 583-596.
- Strayer, F. F., Verissimo, M., Vaughn, B. E., & Howes, C.(1995). A quantitative approach to the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rimary social relationship. In E. Waters, B. E., Vaughn, & G. Posada (E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3. serial no. 244), 49-70.
- von Eye, A., & Bergman, L. R.(2003). Research strategies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imensional identity and the person-oriented approach.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 553-580.
- von Klitzing, K., Kelsay, K., Emde, R. N., Robinson, J., & Schmitz, S.(2000). Gender specific characteristics of five-year-olds play narratives and associations with behavior rating.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1017-1023.
- Wolf, D. P.(2003). Making meaning from emotional experience in early narratives. In R. N. Emde., D. P. Wolf., & D. Oppenheim. (Eds.). *Revealing the inner worlds of young children*(pp. 27-5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Ziv, Y., Aviezer, O., Gini, M., Sagi, A., & Koren-Kaire, N.(2000). Emotional availability in the mother-infant dyad as related to the qua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relationship.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2, 149-169.

접 수 일 : 2010년 4월 22일

심사시작일 : 2010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5월 26일